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 회의일시
 - (1차) 1. 22(목) 14:00-16:00
 - (2차) 1. 27(화) 14:00-17:00
- 회의장소
 - (1차)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석란, 고강민, 김신아, 김이듬, 김정현, 박혜영, 배남우, 서미정, 신승오, 임소영, 한지영

2026년도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사업의 2개 유형([매개·리서치], [창작교류])은 7개 장르 11인이 참여한 장르 통합 심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99건([매개·리서치] 60건, [창작교류] 39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중 행정결격 2건을 제외한 총 97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심의위원 대상 오리엔테이션 수료 후 각 심의위원은 12일에 걸쳐 지원신청서류를 전수 검토하여 개별 지원신청사업별 의견서를 작성하고, [매개·리서치] 유형의 심의기준(사업수행역량(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40%), 국제교류 역량 강화 및 발전 기여(20%))과 [창작교류] 유형의 심의기준(사업수행역량(3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50%), 국제교류 역량 강화 및 발전 기여(20%))에 따라 사전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1차 심의회의는 [매개·리서치]와 [창작교류] 유형의 서류심의 점수 총합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심의위원 전원의 사전 서류심의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확인하고, 2. 유형별 지원 규모에 따라 선정 및 예비 선정권에 든 지원신청사업 중 부적합한 사업이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매개·리서치]는 1차 심의를 최종 심의로 하여 선정 대상과 예비 선정 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의 과정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숙고의 시간을 거쳐 심의위원이 개별 평가한 사전검토 결과 합산을 기준으로, 고득점 순위권에 집중하여 검토했습니다. 지원신청사업이 예술위의 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된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와, 본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예술위의 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더 적합한 경우, 주제적으로 일반론에 그치며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창작교류] 1차 심의에서는 사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선정건수(2건)의 2배수 내외의 2차 인터뷰 심의 대상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에서 5팀과 각 10분 발표 및 10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작교류] 선정단체는 국제교류의 지역성, 단체가 속한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 한국/지역 내 예술적 파급력, 해외 파트너 지역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획 목표, 단계별 지향점, 확산에 관한 고민, 해외 파급력에 대한 계획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교류 결과물 공유를 위한 예산 계획을 보충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선정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매개·리서치] 유형에서는 시각예술 3팀, 연극·뮤지컬 2팀, 무용 1팀, 다원예술 8팀, 총 14개 팀의 지원을 확정하였고, [창작교류] 유형에서는 연극·뮤지컬 1팀, 무용 1팀, 총 2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해외 파트너를 국내에 초청하여 수행하는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사업의 신규 트랙이 2026년 신설되었고, 사업의 새로운 방향에 관해 신청주체마다 이해와 기대의 정도가 상이했습니다. 심의위원 사이에서도 장르 통합 심의 특성 상 다양한 장르를 고려해야 하는 면이 있었고, 신청주체의 수행 역량을 나타내는 국제 교류 경력 서술에서 지속성이 인상적이면서도 꾸준함이 관성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판단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심의위원 사이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심의기준 이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물리적 방문과 대면의 필연성이 있는 기획인가’, ‘해외 예술가/파트너의 국내 방문 시 국내 교류자의 지원과 협력이 성실하고 충분하게 설계되었는가’, ‘국내 예술가와 해외 예술가 사이의 협력 관계가 수평적으로 설계되었는가’와 같은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목적과 취지에 관해 신청주체가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술위 내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예산 편성에 관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신청주체별 편차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인터뷰 심의가 지원신청사업의 실제(실효성)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에 향후 인터뷰 심의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사업 심의위원 일동